

세상은 지금...

사진으로 보는 뉴스

출처: 신화넷

세계 각지, 첫 '국제 태극권의 날' 기념

2025년 11월 5일, 유네스코총회 제 43차 회의는 매년 3월 21일을 '국제 태극권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첫 '국제 태극권의 날'을 앞두고 세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3월 18일, '건강한 삶, 태극권과 함께'를 주제로 한 기념행사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중국과 프랑스 태극권 수련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태극권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내포를 선보이며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세계에 알렸다.



3월 18일, 케냐 나이로비대학교 공자학원에서 태극권 역사와 관련 문화 지식을 강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이 직접 태극권을 수련하는 시간도 마련되며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알리고 중국-케냐 인문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1일, 오스트리아 원에서 태극권 행사가 열렸다.



3월 21일, 제 1회 뉴질랜드 태극권 오픈대회(公开赛)가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꽃바다로 물든 아름다운 마을, 성회를 맞이하다

봄이 한창인 해남성 경해(琼海)시 박오진 남강촌. 수십묘의 꽃밭에 거쟁화(格桑花), 코스모스, 황화국화가 만개한 가운데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박오아시아포럼 2026년 년회를 맞이하고 있다.



3월 17일, 경해시 박오진 남강촌을 찾은 관광객들이 봄나들이를 즐기며 꽃구경을 하고 있다.

▲ 3월 17일 찍은 남강촌 꽃밭

모스크바, 얼음과 눈 녹아내려



3월 15일 로씨야 수도 모스크바에서 찍은 바실리대성당. 최근 모스크바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과 눈이 녹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와 따사로운 봄볕을 즐겼다.

이란, 전쟁 속에서 새해 맞이



3월 19일, 이란 테헤란의 타지리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다. 3월 21일은 이란의 새해인 노루즈절이다. 이란 사람들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

김정은: 룡군에 신형 땅크 장비될 것



조선중앙통신이 3월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19일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 60 훈련기지를 방문하고 보병과 땅크병 구분대의 협동공격 전술연습을 참관했다. 김정은은 이제부터 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 땅크들이 장비될 것이며 조선의 장갑 무력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민, 다카이치정부 위험 정책 규탄



3월 19일 밤, 1만여명의 일본 시민들은 도쿄 국회의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개헌 의사를 내비치고 원거리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는 등 다카이치정부의 위험한 정책 동향에 대해 항의하였다.

한국 공장 화재로 14명 사망



3월 21일, 한국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날 한국 경찰은 이번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망자와 부상자중 중국 국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